



미국 청소년 금융교육 현안과 개선 과제

박정희 선임연구원

연구

미국의 청소년 금융교육은 학교 기반의 금융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교사의 금융교육 역량, 수업방식 효과 등에 있어 한계점이 있는 상황임. 한편, 금융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족은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낮았으며, 지역사회는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CFPB)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관심을 장려하며, 해당 연구를 금융교육으로 실천하는 경험중심적 학습을 확산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장함

■ 미국은 청소년 금융교육¹⁾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²⁾

- OECD PISA의 청소년 금융이해력 국제비교평가³⁾에 따르면, 평가에 참여한 15세 청소년 중 20% 가량이 기본적인 금융지식과 금융서비스 활용 능력이 미흡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OECD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⁵⁾
-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학교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금융교육을 지원해 왔으나⁶⁾, 2015년 실시한 금융이해력 평가 결과가 2012년 이전 평가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교육 방식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성인의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습득되는 만큼 각 분야에서 효과에 기초한 금융교육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1) 금융교육은 단순한 경제적 전달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들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금융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조언 등을 통해 금융역량을 강화시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2)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2019. 4), "Youth Financial Education Research Priorities"
 3)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중 청소년 금융이해력 평가는 2012년부터 18개국(13개 OECD 회원국과 5개의 비회원국)의 학생들을 대상(15세 청소년 4만 8천 명)으로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주요 질문은 금융내용(금전 거래, 금융 계획 및 관리, 금융정보 확인, 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 권리 등)과 금융상황 이해(교육 및 직업, 가정과 가족, 개인 및 사회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내용임
 4) <http://www.oecd.org/daf/fin/financial-education/many-teenagers-struggle-to-understand-money-matters.htm>
 5) <http://www.oecd.org/education/PISA%20Volume%20IV%20Financial%20Literacy%20Chart.png>
 6) 2001년 청소년금융교육법(Youth Financial Education Act)을, 2004년에는 경제교육법(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을 제정하여 학교교육 중심의 경제 및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였음

■ 미국의 청소년 금융교육은 학교 기반의 금융교육 비중이 가정이나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교사의 금융교육 자격 여부와 수업방식 등에 있어 한계점이 많은 상황임

- 학교는 규모면에서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특히 다른 경로를 통해 금융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효율적임⁷⁾
 -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비율이 높은 학교가 금융이해력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⁸⁾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교육기관의 금융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2/3는 주(州)정부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할 교사연수가 필요함
 - 교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청소년 금융역량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어떤 유형의 연수가 교사의 금융지식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금융성적을 높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업을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 교과과정에 관련 내용을 통합시키거나 별개의 과목으로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기구(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는 모든 수업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함⁹⁾

■ 한편, 청소년의 금융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나 가족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금융교육도 필요함

- 가족구성원에 의한 행동모방을 통해 금융학습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부모의 설명이나 조언 등의 직접적인 정보 제공 등이 청소년의 금융역량에 영향을 미침
 -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나 구성원들이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고 자녀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부모의 금융지식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청소년 금융지식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때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그 외 부양자의 실직이나 사망 등 가족의 재정적 스트레스 요인 차이가 자녀의 금융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금융자료, 기타 학습방법 제공은 금융교육에 노출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유익할 수 있음

7) Next Gen Personal Finance(2017. 9), "Who has access to financial education in America today?"

8)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17), "A First Look at the 2015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Financial Literacy Results", Presentation to the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9)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2019. 4), "A Review of Youth Financial Education: Effects and Evidence"

- 방과 후 활동이나 기타 과외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은 금융교육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청소년은 금융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모바일 앱, 소셜미디어 등의 플랫폼에 청소년들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금융교육의 게임화¹⁰⁾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¹¹⁾
 - 금융게임은 재미있고 스트레스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사용자를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데 효과적이며, 금융소비자의 재무능력 향상 및 건전한 금융습관을 장려하는데 유익한 도구임
- 이에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기구(CFPB)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관심을 장려하며, 해당 연구를 금융교육으로 실천하는 경험중심적 학습을 확산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장함
-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기구(CFPB)는 각 분야에서 유효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확장가능성(Scalability)이 있는 방향으로 금융교육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장함 **kiri**

10) 게임화(Gamification)는 'Game'과 'Fication'이 결합된 개념으로 게임 이외의 영역에서 동기 유발, 흥미, 보상, 규칙 등 게임적인 사고와 디자인적 요소 등(Game Mechanics)을 통해 사용자를 몰입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함

11) <http://www.megamification.com/digital-games-and-edutainment-for-financial-literacy/>